

# 청소년의 민족정체감 조사 비교

—한국, 중국, 소련, 일본 거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 The Acquisition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ison of In-country and Overseas (Chinese, Russia and Japan Residents) Korean Adolescents

이 순 형\*\*

Yi, Soon Hy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measuring the acquisition of national identity of in-country and over-seas Korean adolesc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574 incountry and overseas (Chinese, Russia and Japan) Korean adolescents (total 509), 15 to 25 years of age. Data were collected with the use of a questionnaire, the Scale of National Identity.

The results were that (1) the concept of national identity was organized on two dimensions (cognitive vs. sociocultural). The former consisted of 6 cognitive characteristics (uniqueness, sameness, continuity, acceptability, respectability and royalty). The sociocultural dimension consisted of the cognition of 7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history, norm, fraternity, symbol, consanguinity, Korean language and nationality). Except for consanguinity,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within each and between the 6 cognitive characteristics. Also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within each and between the 7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identity. (2) Som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of respondents, place of birth and level of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contributed to acquisition of national identity. (3) Among several demographic variables, nationality was the most explainable.

### 1. 서 론

민족정체감은 한국민족의 민족정체의식을 개

념화한 것으로서, 심리적 정체와 사회문화적 정체로 분류될 수 있다(이순형, 1991; Waterman, 1992). 심리적 정체는 민족의 고유성(固

---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有性), 동일성(同一性), 지속성(持續性), 수용성(受容性), 존중성(尊重性), 충실성(忠實性)을 인지하는 것이며 사회문화적 정체는 역사(歷史), 규범(規範), 동포애(同胞愛), 상징(象徵), 혈연(血緣), 언어(言語)와 국적(國籍)에 대한 정체 의식이다. 이 개념 틀에 따르면, 민족 정체감은 심리적 정체와 사회문화적 정체의 통합으로서 인지개념의 조합을 따져보면 6×7개의 하위개념이 유도된다. 민족정체감 척도는 이 42개의 하위개념 영역별로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모형은 민족 정체감 척도로 구체화되었으며(이순형, 1992), 이를 가지고 한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어느 연구나 그렇듯이 예비조사에 사용된 척도는 그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민족정체감 척도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접 학문영역에서 연구되어 온 개념을 원용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서봉연(1992)과 이순형(1991)이 민족정체감 척도를 달리 구성해서 각각 측정했다. 두 연구가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다르고 도구의 구성 내용이 다를 때, 두 척도가 서로 동일한 현상을 동일한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다.

민족정체는 자아정체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처한 가정과 사회환경에 따라서 달리 형성되고 발달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주 동기나 시기가 다르고 이주한 국가의 사회체제나 관습 또는 문화적 환경이 다른 경우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체제와 문화가 다른 국가에 이주한 한인교포 2세 청소년들이 한민족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했는지를 조사하여 한국 청소년의 것과 또 그들 각각의 것과 상호 비교하려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민족정체감의 정의 및 개념 구성

정체감이란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同質性)과 연속성(連續性)이 유지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Erikson, 1950, 1956)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감 가운데 집단 정체감의 하나로 민족 정체감이 정의되어질 수 있다. 민족 정체감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 집단의 정체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는 인지 체계이다.

정체감은 동일성, 고유성, 자기 수용감,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의 역할 기대, 지속성, 목적 지향성과 대인관계 영역의 7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진 총합체이다(Dignan, 1965).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에 친족의식(이광규, 1975)과 친족간 관계로의 심리적 회귀의식이 국민의 의식 저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민족 정체감에는 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혈연집단이라는 친족의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민족정체감은 정체감의 보편적 특성인 심리적 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 충실성에 첨가해서 민족의 현존(現存)에 영향을 주었을 역사, 규범, 동포애, 상징, 혈연, 언어, 국적에 대한 정체 의식이 포함되어 새롭게 개념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순형(1991)은 민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서 역사, 규범, 동포애, 상징, 혈연, 언어와 국적에 대한 정체 의식 등을 추출하였는데, 이

하위 개념을 자아정체와 관련지워 민족집단에 대한 정체의를 명료하고 측정이 가능한 문항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첫번째로 민족정체감을 다면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실제로 다면성을 측정했다. 우선 민족정체감은 정체감을 구성하는 인지적 차원인 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 충실성과 사회 문화적 차원인 역사, 규범, 동포애, 상징, 혈연, 언어, 국적에 대한 정체의식으로 구성했다. 경험적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족 정체감을 구성하리라고 예상된 7개의 하위개념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7개의 구성 개념간 상관은 아주 높게 나타났으나, 자료의 중다공선성을 의심할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두 과제가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련된 과제를 통해서 민족정체를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족정체감이 민족에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의식이 동일성 독자성 지속성과 친밀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족정체감을 구성한 6개의 차원, 즉 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 충실성 차원에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정체감 인지의 하위 차원 간에도 높은 상호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민족정체감은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다면적 개념이며, 각각의 하위 영역의 개념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 2. 민족정체감의 사회 역사성

개인의 자아정체감이 생활경험에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듯이, 민족정체감은 그 민족이 겪어 온 역사적 사건, 사회 상황과 문화적 요인에 의

해서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왔다. 우리 민족이 경험한 급격한 사회 역사적 상황의 변화는 이념의 대결상태, 분단과 그로 인한 타문화권에의 유입(流入)과 정착(定着)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일본의 압정(壓政)과 그후 이념의 대결 상태는 상호 불신과 냉전상태를 유발했으며 그러한 상태는 직접, 간접으로 개인의 삶에 말할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생명의 불안과 심리적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갈등을 피해서 제 3세계로 이주했다. 소련이나 만주로 이주했던 이들의 민족정체는 말할 바도 없으며 조국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한 그들의 후손들도 한국 청소년과는 달리 독자적이면서 독특한 민족정체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입각해 볼 때, 한민족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에 대해 두 가지 연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한국과 해외 거주 교포청소년이 어떠한 민족정체감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러한 의식 중에 동질적 부분이 무엇이며 이질적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민족정체의 동질성 정도와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배경 변수와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첫번째 연구문제는 자료의 빈도 분포를 가지고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의 면접 조사에 의해서 논의될 수 있다.

1) 본 연구의 민족정체감 척도는 한민족 청소년의 민족정체 의식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타당하고 신뢰로운가?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민족정체감 척도는 민족정체감의 심리적 특성(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 충실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역사, 규범, 동포애, 상징, 혈연, 언어와 국적의식)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니는가?

2) 한민족 청소년들의 민족정체감 중 인지적 특성(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 충실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역사, 규범, 동포애, 상징, 혈연, 언어와 국적의식)은 사회문화적 환경, 즉 국적이나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Ⅲ.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 대상지역은 아시아로 한정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로서 일본을,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련 중앙 아시아와 중국의 연변을 선정하여 소련 라마타와 연변의 한인 자치구의 고등학교 재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 1083명이다. 국내 거주 청소년 574명과 재외교포 청소년 509명이다. 조사대사의 40.4%는 남자이고 59.2%는 여자이다. 조사 대상의 23.5%는 중학생, 57.3%는 고등학생이고 19.3%가 대학생 이후의 성인기에 속한다. 조사 대상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가 574명(53.0%)이고, 외국 국적의 경우는 509명(46.9%)이다. 청소년들의 고향이 대도시인 경우가 425명(57.4%)이고 기타 지방이 313명(29.2%)이다.

〈표 1〉 조사대상 청소년의 지역분포

이념분류	자본주의권		사회주의권	
	한국	일본	연변	소련
대상수	574	184	208	117
계	758		325	

대상의 대다수(89.6%)는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다. 부의 직업은 사업(22.6%), 상업과 서비스(24%), 회사원(21.9%)의 순서로 비율이 높다. 부의 학력을 보면, 대졸 이상인 경우는 308명(28.4%)으로 고졸인 경우(26.9%)나 중졸 이하(19.6%)인 경우에 비하여 더 높다. 모친의 과반수 이상인 58.0%가 전업주부이며, 모가 취업한 경우는 전체 대상의 22.6%이다. 그리고 모의 학력은 고졸(30.3%)인 경우가 가장 많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51.2%, 종교를 가진 사람은 38.7%이며, 종교별로는 응답자의 9.4%가 불교, 17.9%가 신교, 4.8%가 구교이며 0.3%가 기타에 속한다.

#### 2. 조사 방법

본 조사는 1992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 훈련된 면접자를 통해서 면접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내 연구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서울과 안동지역에 가서 비구조화된 델레마 상황과 구조화된 민족정체감 척도를 가지고 조사 대상을 대면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일본자료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모국을 방문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중국자료는 현지의 자료 조사가 금지되어 있는 사정때문에 교포학자의 협력으로 조사되었다. 소련 자료는 현지에서 한국어교사와 협력해 면접 조사되었다.

#### 3. 조사 도구

민족정체감 조사 척도는 2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단계는 선행연구(이순형, 1991, 1992)에서 민족정체감의 개념 구성에서 논리적으로

고찰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된 민족정체감 측정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했다. 선행연구의 이 척도는 정체감의 보편적 특성을 측정하는 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 충실성의 차원에 따라서 사회문화적 내용인 역사, 규범, 동포애, 상징, 혈연, 언어, 국적의식을 구체화시켜서 7 내용 영역 각각을 6차원에 따라서 각각 하위 영역당 4-5문항(6×7×5)으로 모두 2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설문을 이미 실시된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아동학과 심리학 전공 학부생 8명과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문항구성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38문항을 선정해 본 조사용 민족정체감 척도를 구성했다.

#### 4. 분석 방법

구조적 설문 내용은 수량 분석 방법을 사용해 SPSS Package로 통계 분석했다. 비구조적 딜레마 내용은 논리적 범주별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선행연구의 문항과 달리 새로운 문항을 제시한 경우에 그 문항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아동학과 심리학 전공 학부생 8명과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문항이 하위 영역에 내용을 구체화한 적절한 문항이라고 전원이 응답한 문항 38문항만을 가지고 민족정체감 척도를 구성했다. 이러한 내용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선정한 38문항을 가지고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 Cronbach' $\alpha$  = .841으로 이 척도가 신뢰할 만한 척도임을 알 수 있다.

## IV. 연구 결과의 해석

이 자료는 연구문제별로 분석되었다.

### 1. 민족정체감의 다면성

선행연구(서봉연, 1991; 이순형, 1991, 1992)에서는 정체감을 구성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고유성, 동일성과 지속성을 상정하고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정체감은 인지적 특성만이 아니라 그 존재를 수용하고 애착을 느끼며 존중하고 어디까지나 그의 소속원으로서 충실함의 정도를 정체감을 구성하는 다면적 요인으로 상정하였다. 말하자면 한민족에 대한 애착과 같은 정서적 요인도 중요한 특성으로 본 것이다. 실제 조사 결과 이러한 가정은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민족정체는 인지적 요인뿐 아니라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 준다. 본 연구가 조사한 자료 각각의 특성별 점수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정체감은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민족정체감은 민족에 대한 정체의식이다. 민족에 대한 정체의식은 다시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으로 나뉜다. 민족정체 의식의 인지적 특성인 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점수는 중앙값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민족정체 의식의 정서적 특성인 수용성, 존중성과 충실성 점수도 중앙값을 넘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간에 재외 교포 청소년들의 민족정체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적 특성인 역사, 규범, 동포애, 상징, 혈연, 언어의식 점수도 중앙값을 넘어서 이러한

〈표 2〉 민족정체감 점수의 빈도 분포

대 값	사례수	구성문항수	문항간	상관	내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인지값 특성								
고유성	17.77	3.79	5.00	25.00	1049	5	.492	
동일성	21.32	3.53	9.00	30.00	1034	6	.301	
지속성	18.54	3.23	5.00	25.00	1056	5	.353	
수용성	25.84	4.61	9.00	35.00	1038	7	.527	
존중성	28.46	4.97	7.00	37.00	1056	8	.752	
충실성	29.85	5.12	11.00	40.00	1027	8	.563	
사회문화적 특성								
역사	18.87	3.45	5.00	25.00	1053	5	.517	
규범	25.94	4.44	7.00	35.00	1057	7	.515	
동포애	27.06	3.85	8.00	35.00	1040	7	.324	
상징	14.83	3.05	4.00	20.00	1037	4	.436	
혈연의식	21.16	4.57	6.00	30.00	1036	6	.610	
언어	16.34	3.25	4.00	20.00	1059	4	.591	
국적	5.48	1.95	2.00	10.00	1075	2	.007	
민족정체감	142.19	18.87	62.00	185.00	922	74	.841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지역으로 이주하였든 청소년들은 한 민족의 문화에 대한 정체 의식을 상당 수준 높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적에 대한 인식은 예외이다. 개인은 누구나 한 민족으로 족하며 어떤 특정 국적만을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말하자면 국적에 대한 의식은 개방되어 있다.

첫번째 연구문제는 민족정체감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것이었다. 청소년의 민족정체 의식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민족정체감의 인

지적 특성(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 충실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역사, 규범, 동포애, 상징, 혈연, 언어, 국적)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측정하는 척도인가를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했다. 2차에 걸쳐서 아동학과 심리학 전공 학부생 8명과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문항구성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측정했는데 각각 문항의  $\alpha$  값은 표와 같이 전체 문항간 평균값이 .859이므로 이 척도가 신뢰할 만한 척도임을 알 수 있다.

<표 3> 민족정체의 하위영역별 상관

구분	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	충실성
고유성	1.000					
동일성	.293***	1.000				
지속성	.212***	.386***	1.000			
수용성	.372***	.545***	.444***	1.000		
존중성	.485***	.522***	.425***	.622***	1.000	
충실성	.486***	.527***	.399***	.602***	.630***	1.000
역사	.244***	.530***	.700***	.540***	.600***	.540***
규범	.550***	.449***	.630***	.605***	.624***	.641***
동포애	.400***	.571***	.395***	.671***	.508***	.540***
상징	.598***	.488***	.295***	.501***	.635***	.559***
혈연	.638***	.547***	.343***	.594***	.674***	.645***
언어	.356***	.478***	.417***	.591***	.655***	.747***
국적	.211***	.455***	.140***	.344***	.194***	.224***
민족정체감	.634***	.717***	.604***	.814***	.842***	.837***

\*\*\* p < .001

구분	역사	규범	동포애	상징	혈연	언어	국적	민족정체감
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								
충실성								
역사	1.000							
규범	.446	1.000						
동포애	.381***	.446***	1.000					
상징	.387***	.475***	.361***	1.000				
혈연	.425***	.519***	.423***	.480***	1.000			
언어	.511***	.501***	.478***	.477***	.452***	1.000		
국적	.223***	.215***	.086***	.186***	.302***	.099***	1.000	
민족정체감	.696***	.778***	.690***	.694***	.777***	.742***	.343***	1.000

\*\*\* p < .001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족정체감은 다면적 개념으로서 고유한 인지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인지하는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 영역의 개념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우선, 위의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민족정체감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었다. 민족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의 하위 영역의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상호관련성은 이 도구가 밀접한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고해서 공다공성을 가정할 만큼 높은 상관은 아니어서 논리적으로나 실제로 타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 2. 배경변수에 따른 민족정체감의식

청소년의 민족정체감 인지가 청소년의 인구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은 연령( $F=40.48$ ,  $df=2$ ,  $p<.0001$ ), 사회체제( $F=182.39$ ,  $df=3$ ,  $p<.0001$ )와 한글 이해 정도( $F=61.90$ ,  $df=3$ ,  $p<.0001$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민족정체감은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다. 본 조사 대상의 연령이 피아제의 구분에 따르면 모두 형식적 조작기인데도 불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족정체감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국에 대한 의식이 성인이 되면서 알거나 모르며 받는 차별감으로 인해 강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귀의식이 강화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응답 청소년들의 고향에 따라라도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의 차이를 보인다. 고향이 지방인 청소년이 서울이 고향인

청소년에 비하여 민족정체감이 더 높았다. 대도시는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향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듯하다. 말하자면 대도시는 고향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또한, 국적도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에 차이를 나타낸다. 국적이 중국과 소련인 청소년이 국내의 청소년이나 일본 국적의 청소년보다 민족정체감이 더 높았다. 즉, 한글을 이해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한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보다 민족정체감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민족정체감과 한글 이해도 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데,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민족정체감이 뚜렷한 청소년이 한글을 잘 배워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글 사용이 격려되는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민족정체 형성이 격려되는지, 아니면 한글 이해도와 한글 과제 수행간의 차이인지, 한글로 씌여진 설문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3. 배경변수에 따른 민족정체감의 인지적 특성 인지

청소년의 배경변수에 따라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 중 인지적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 1) 고유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고유성'에 대한 인지는 국적( $F=28.49$ ,  $df=3$ ,  $p<.0001$ ), 성별( $F=4.89$ ,  $df=1$ ,  $p<.05$ ), 연령( $F=20.96$ ,  $df=2$ ,  $p<.0001$ ), 한글 이해 정도( $F=5.59$ ,  $df=3$ ,  $p<.001$ )와 종교( $F=4.35$ ,  $df=4$ ,  $p<.01$ )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다. 소련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국, 일



본, 중국 국적의 청소년보다 고유성을 더 높게 인지했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민족의 고유성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민족의 고유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불교나 천주교를 믿는 청소년들이 기독교나 종교가 없는 청소년보다 고유성을 더 높게 인지했다.

2) 동일성

민족의 '동일성'에 대한 인지도 국적( $F=116.97, df=3, p<.0001$ ), 성별( $F=19.00, df=1, p<.0001$ ), 연령( $F=28.92, df=2, p<.0001$ ), 한글의 이해 정도( $F=48.89, df=3, p<.0001$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 국적을 가진 교포, 한국, 소련 국적, 중국 국적의 순서로 청소년의 동일성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말하자면 사회주의권 교포 청소년들의 동일성 인지가 자본주의권 청소년들보다 더 높다. 또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연령이 19세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인 집단보다, 한글을 잘 아는 청소년들이 한글을 모르는 청소년보다는 민족정체감의 동일성 인지 정도가 더 높았다.

3) 지속성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중 '지속성'에 대한 인지도 국적( $F=33.37, df=3, p<.0001$ ), 성별( $F=7.28, df=1, p<.01$ ), 연령( $F=9.92, df=2, p<.001$ ), 한글 이해 정도( $F=21.82, df=3, p<.0001$ ), 종교( $F=12.52, df=4, p<.0001$ )에 따라 다르다. 민족의 지속성에 대한 인지는 일본, 한국, 소련,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성에 대한 인지와 마찬가지로이다. 남자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체의 지속성 인지가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고, 연령이 높은 집단의 인지도가 연령이 낮은 집단의 인지도보다 더 높다. 또한 민족정체의 지속성 인지가

한글이해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진다. 한글을 모르는 청소년보다는 한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그리고 그보다는 듣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 읽고 쓰기까지 할 수 있는 순서로 지속성 인지도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다. 종교에 따라서도 지속성 인지의 차이가 있다.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무교, 천주교 신자의 순서로 청소년이 민족정체의 지속성 인지가 높아진다.

4) 수용성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 중 '수용성'도 국적( $F=85.81, df=3, p<.0001$ ), 성별( $F=8.24, df=1, p<.01$ ), 연령( $F=20.92, df=2, p<.0001$ ), 한글이해 정도( $F=60.79, df=3, p<.0001$ ), 종교( $F=6.29, df=4, p<.001$ )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수용성 인지 양상은 지속성 인지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족정체의 인지적 속성 인지는 대체로 일관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5) 존중성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존중성'은 국적( $F=78.50, df=3, p<.0001$ ), 성별( $F=5.07, df=1, p<.05$ ), 연령( $F=24.57, df=2, p<.0001$ ), 한글이해 정도( $F=45.34, df=3, p<.0001$ ), 종교( $F=4.24, df=4, p<.01$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이나 일본 국적의 청소년보다는 소련과 중국 국적의 청소년이 존중성을 더 높게 인지했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연령이 19세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인 집단보다, 한글 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민족의 존중성에 대한 인지가 높다. 또한, 종교가 없거나 천주교를 믿는 청소년이 기독교나 불교를 믿는 청소년보다 존중성이 높게 나타났다.

## 6) 충실성

‘충실성’도 국적( $F=90.91$ ,  $df=3$ ,  $p<.0001$ ), 연령( $F=41.14$ ,  $df=2$ ,  $p<.0001$ ), 한글이해 정도( $F=53.61$ ,  $df=3$ ,  $p<.0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차와 종교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 국적인 청소년의 충실성 점수가 그 이외의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낮았다. 충실성 점수가 연령에 따라 달라서 15세 이하의 집단과 16-18세 집단, 그리고 19세 이상 집단간에 뚜렷이 구분되었다. 한글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충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배경 변수에 따른 민족정체감의 사회문화적 특성 인지

청소년의 배경 변수에 따라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사회문화적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 1) 역사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역사’에 대한 인지는 국적( $F=221.46$ ,  $df=3$ ,  $p<.0001$ ), 연령( $F=21.58$ ,  $df=2$ ,  $p<.0001$ ), 종교( $F=12.50$ ,  $df=4$ ,  $p<.0001$ ), 한글이해 정도( $F=51.39$ ,  $df=3$ ,  $p<.0001$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외국 국적인 청소년이 한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에 비해서 민족정체감의 역사 영역에서의 인지 점수가 더 높다. 연령이 19세 이상인 집단은 그 이전의 집단보다 민족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높다. 또한 고향이 지방인 청소년은 고향이 서울인 청소년보다 민족정체감의 역사 영역에서의 인지 점수가 더 높다. 조국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타국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다.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이 종교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무교인 청소년의 역사 인지 점수가 다른 종교를 가진 청소년보다 더 높는데, 천주교 신자인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 비하여 역사 영역에서의 정체감 점수가 더 낮다.

## 2) 규범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사회규범’에 대한 정체 의식에서 청소년의 국적( $F=81.20$ ,  $df=3$ ,  $p<.0001$ )과 연령( $F=23.03$ ,  $df=2$ ,  $p<.0001$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외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에 비해 사회 규범에 대한 인지가 더 높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현상은 역사에 대한 인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16, 17세를 기점으로 하여 두 집단간 규범 인지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17세 이후의 청소년이 그 이전의 집단보다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인 규범에 대한 인지 점수가 더 높다.

## 3) 동포애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동포애’에 대한 인지에서 청소년의 국적( $F=70.51$ ,  $df=3$ ,  $p<.0001$ ), 연령( $F=9.46$ ,  $df=2$ ,  $p<.001$ )과 한글이해 정도( $F=39.72$ ,  $df=3$ ,  $p<.0001$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국적이 한국, 중국, 소련인 청소년의 동포애에 대한 인지가 국적이 일본인 청소년보다 높다. 또한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동포애에 대한 인지가 유의하게 높다. 또한 동포애에 대한 인지는 한글 이해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즉, 한글 이해 정도가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동포애 점수가 높다.

## 4) 상징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 중 ‘상징’에 대한 인

지에서 청소년의 국적( $F=20.93$ ,  $df=3$ ,  $p<.0001$ ), 연령( $F=14.86$ ,  $df=2$ ,  $p<.0001$ )과 한글 이해 정도( $F=9.70$ ,  $df=3$ ,  $p<.0001$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국적이 한국, 중국, 소련인 청소년이 국적이 일본인 청소년보다 상징에 대한 인지가 높다.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상징에 대한 인지가 높다. 한글 이해 정도에 따라서도 상징에 대한 인지에 차이가 있는데, 한글 이해 정도가 높은 청소년이 상징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다.

5) 혈연의식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혈연의식’에 대한 인지에서 청소년의 연령( $F=33.04$ ,  $df=2$ ,  $p<.0001$ ), 한글 이해 정도( $F=33.47$ ,  $df=3$ ,  $p<.0001$ )와 계층( $F=2.90$ ,  $p<.05$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이 17세 이후인 집단의 경우에 그 이전의 집단보다 혈연의식 범위의 인지 점수가 높다. 한글이해 정도가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혈연의식 영역에서의 인지 점수가 더 높다. 또한 이 영역에서의 인지 점수에 계층간 차이가 존재한다. 즉, 계층이 중하인 경우에 혈연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점수가 가장 높고, 계층이 하인 경우에 가장 낮다.

6) 언어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언어’에 대한 인지에는 청소년의 국적( $F=182.39$ ,  $df=3$ ,  $p<.0001$ ), 성별( $F=4.21$ ,  $df=1$ ,  $p<.05$ ), 연령( $F=44.07$ ,  $df=2$ ,  $p<.0001$ ), 한글 이해 정도( $F=61.90$ ,  $df=3$ ,  $p<.0001$ ), 계층( $F=3.64$ ,  $p<.05$ )과 종교( $F=8.83$ ,  $p<.0001$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외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에 비해 언어 영역의 점수가 더 높다는 점은 다른 영역에서의 인지 과제 수

행결과와 다를 바가 없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과제 수행 점수가 더 높다. 그리고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언어에 대한 정체 인지 점수가 더 높다.

또한 한글 이해 정도에 따라서도 민족정체의 하위 영역인 언어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가 다르다. 즉, 한글 이해 정도가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언어 영역에서의 인지점수가 더 높다.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도 언어에 대한 인지가 다르다. 즉, 가정의 사회계층이 중상인 청소년이 다른 계층의 청소년에 비해 언어 영역에서의 인지 점수가 더 높으며, 역으로 계층이 낮은 청소년이 다른 계층의 청소년에 비하여 언어 영역의 점수가 더 낮다.

흥미로운 점은 종교에 따라서 청소년의 민족정체 의식이 다른 점인데, 언어 영역에서의 민족 정체 인지는 천주교, 무교, 불교, 기독교의 순서로 점수가 더 높다.

7) 국적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 중 ‘국적’에 대한 인지는 국적( $F=60.43$ ,  $df=3$ ,  $p<.0001$ ), 연령( $F=14.42$ ,  $df=2$ ,  $p<.0001$ ), 한글 이해 정도( $F=3.11$ ,  $df=3$ ,  $p<.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외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이 국내 청소년들보다 국적에 대해 더 높게 인지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국적에 대한 인지가 높으며, 한글을 모르는 청소년보다는 한글을 아는 청소년의 국적에 대한 인지가 더 높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한민족 청소년들이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고유한 민족정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한 민족정체 의식이 이주 국가에 따라서 유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준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청소년의 고향, 한글 이

해도 등이 민족 정체 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주의권 청소년들의 민족정체 의식이 일관되게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본주의권의 청소년들이 민족이라는 집단보다는 개인 중심의 의식이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V. 결 론

민족정체감은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하여 수 편의 논문(서봉연, 1992; 신승철·이동근·김만권·이호영, 1992; 이순형, 1991, 1992)에 불과하며 민족정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가능한 문항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 있다.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을 확장시킨 선행연구(서봉연, 1992)와 역사, 정치학자들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이끌어낸 개념들(이순형, 1991)을 문항으로 구체화한 선행연구(이순형, 1992)를 접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그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려 시도했다. 이주 역사와 현 생활 여건이 다른 교포청소년들이 민족 정체를 달리 형성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 교포 청소년들을 고루 대상으로 선정하려 했으며, 전자에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후자에 소련과 연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민족정체감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청소년들이 민족정체감은 다면적 개념으로서 민족의 하위 특성을 나타내는 영역별 인지 차원과 사회문화 차원으로 구성된다. 인지 차원은 정체성의 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과 충실성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문항을 구성하여 여러 명의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자들에게 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측정하게 했으며 통계분석을 통해서 응답 문항의 신뢰성을 측정하게 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의 인지 특성 간 관련성이 깊다. 민족정체감의 사회문화적 차원은 역사, 규범, 동포애, 상징, 혈연, 언어와 국적에 대한 지각으로 세분된다. 이들 7개 영역 간에도 상관성이 높다. 이처럼 민족정체감을 구성하는 인지 및 사회문화 영역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조사에서 각 영역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된 이 민족정체감 측정 척도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인구배경 변수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 의식이 다르다. 특히 국적과 출생지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민족정체 의식이 다르다. 이 중에도 국적이 가장 영향력 큰 변수로 작용한다. 국적에 따라서 이주 역사와 생활환경이 다르므로 청소년이 형성한 민족정체가 다를 것이다. 사회주의권 청소년들이 자본주의권 청소년들보다 민족정체의 인지적 특성인 민족에 대한 고유성, 동일성, 지속성, 수용성, 존중성과 충실성을 더 깊이 형성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민족의 역사, 언어, 규범, 국적에의 집착, 동포애와 민족적 상징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사회주의 이념이 집단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조국과 과거에 대해 인식을 돈독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듯하다. 역으로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이념과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개인으로 하여금 더 빨리, 더 멀리 성취하도록 암암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듯하다. 현 자본주의 사회가 경쟁을 통

해 개인이 성취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조국의 의미가 덜 중요하고 조국이 현실세계와 멀리 인식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혈연의식에는 청소년의 국적에 따른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연구(이순형, 1992)와 일치한다. 이념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민족정체가 다른데 혈연의식만은 국적에 따라 차이가 없이 동일한 인지적 개념으로 간주되는 듯하다. 혈연이야말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인지적 개념체로 간주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어느 국가에 살든지간에 민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혈연을 꼽는다.

또한 청소년들의 민족정체감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 이는 선행연구(이순형, 1992)에 의해서도 보고된 바이다. 17세 미만인 집단과 그 이상인 청소년 집단 사이에 민족정체감이 달리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한 과제의 하위 영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과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17세가 민족정체감의 형성에 전환기인 듯하다. 이는 인지 발달의 특성으로 시기를 구분짓는 피아제의 발달시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정보처리론적 연속성 발달 이론으로 설명되어야 할지도 의문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한글의 이해 정도가 청소년의 민족정체감 형성과 관련되고 있다. 한글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인 경우에 한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보다 민족정체 의식이 더 높았다. 민족정체 의식이 강한 청소년이 한글을 배웠을 것이다. 역으로 한글을 배운 사람의 민족정체 의식이 강하다는 점을 말한다. 조국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을 것이므로 한글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와 민족정체 의식의 강도가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분위기뿐 아니라 이주 지역에 따라서도 민족정체 의식이 다른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연변지역이 한글이나 우리 문화를 잘 유지하는 점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연변의 청소년들이 이중적이긴 하지만 한족이라는 의식과 더불어 조선족이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민족을 구성하는 핵심개념으로서 두 가지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민족정체감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밝힌 의의를 말한다. 다면적 개념인 민족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여러 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측정 도구가 밀접한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었음과 동시에 타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또 하나의 의의는 한민족 청소년들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고유한 민족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 거주하거나 동일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독자적 민족정체성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사회문화적 영향이 배제된 것은 혈연에 대한 인식 뿐이다. 민족정체감이 문화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응답자들의 사회체제나 거주지역에 따라서 민족정체감이 다르다.

사회주의체제가 더 집단중심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이러한 경향이 민족정체를 강화시키는 듯하다. 특히 중국 청소년들의 민족정체감이 다른 지역 청소년들보다 더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소수 민족의 고유문화를 인정하는 문화정책이 청소년들의 자아를 건설하게 형성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연변 청소년들의 민족정체가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신승철 외(1992)의 보고는 재외 교포들의 민족정체 개념이 점차 약화될 것임을 시사받는다. 세대간 부모자녀 세대간 민족 정체 의식 변화에 대한 추적 조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서봉연 (1991). 통독과정에 있어서의 동서독 청소년의 정체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미발표 논문.

신용하 (1985). 민족 형성의 이론. 신용하 편 민족이론, 서울:문학과 지성사, 13-58.

신승철·이동근·김만권·이호영(1992). 중국 길림성 조선족의 민족정체감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1권, 제2호, 384-414.

이광규 (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이순형 (1991). 민족정체감의 개념화와 측정 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4호, 139-152.

이순형 (1992). 한국청소년과 재외교포 청소년의 민족정체감 조사 비교. 아동학회지, 제13권, 2호 99-112.

차기벽 (1978).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까치.

차기벽 역 (1981). 민족주의:이념과 역사. 서울:한길사.

Carr, E. H. (1945).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Der-Karabetian, A. (1980). Relation of two cultural identities of Armenian-Anerucabs, Psychological Reports, 47, 123-128.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

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Youth and Social Psychology, 1, 476-483.

Driedger, L. (1976). Ethnic self-identity: A comparison of ingroup evaluations. Sociometry, 39, 131-141.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 Y.:Norton.

\_\_\_\_\_ . (1956). The problem of age identity. Journal of American Psychologist, Assoc, 4, 56-122.

Hayes, C. J. H. (1959). Nationalism.

Hogg, M., Abrams, D., & Patel, Y. (1987).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of Indian and Anglo-Saxon British adolescent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3, 487-508.

Parham, T., & Helms, J. (1985). Relation of racial identity attitudes to self-actualization and affective states of Black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431-440.

Phinney, J. (1989). Stages of ethnic identity in minority group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ts, 9, 34-49.

Phinney, J.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499-514.

Singh, V. (1977). Som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study of ethnic identi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Annals, 285, 32-42.

Ting-Toomey, S. (1981). Ethnic identity and close friendship in Chinese-Americ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 383-406.

Waterman, A. S. (1992). Identity as an aspect of optimal psychological functioning. G. R. Adams, T. P. Gullotta, & R. Montemayor (eds.),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